

고창 '무장포고문' 세계유산 등재 앞 동학혁명 위상 강화

17일 한국사 최대성 강사 초청 특강·전봉준 동상 건립 등 선양사업 세계기록유산 자문위 '등재 권고' 결정...24일 유네스코 총회 관심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창 무장기포에서 선언된 '무장포고문'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확실 시되는 가운데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선양사업들을 추진기로 했다.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해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 가운데 무장포고문이 포함됐다며 오는 24일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총회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장포고문은 당시 조정에 대한 포고문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왕인 임금을 해하지 않고 당시 학정을 일삼던 탐관오리를 척결해 신하와 백성으로서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며 사립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포고문은 고부봉기 이후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지도부가 무장현(현재 고창군 공음면)

에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선언하면서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고 이후 부안 백산대회로의 총집결을 이끌었다.

고창군은 현재 전도교 중앙총부가 소장중인 무장포고문 필사본 복제 작업에 착수했으며 향후 무장기포지에 기념관을 짓고 포고문 필사본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군정 맞은편 수변공간과 잔디광장에 조성되는 전봉준공원에 군비 4억원과 성금 2억원 등 6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봉준 장군 동상은 전국 작가공모를 통해 당선작으로 뽑힌 국경오 작가의 '羲의 깃발 아래'다.

전봉준 장군이 무장포고문 선포 후 의연한 자세로 앞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 그 옆에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왜양창'의 새겨진 커다란 깃발 아래 농민군이 비장하게 결의하는 모습, 고통받던 민초들의 처절한 얼굴 등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이어 군은 고창기념사업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 직원을 상주시켜 고창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 문화의전당에서 '한국사 큰별'의

저자인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지역 청소년 630여명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특강을 열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과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소개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애항심과 고창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힘으로 커진 동학농민혁명은 자주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고자 했던 근대 민중운동의 효시"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공무원 '농촌일손돕기' 솔선수범



정읍시청 직원들이 고구마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23개 읍·면·동 인력지원실 운영

정읍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가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한다.

정읍시는 농번기인 5-6월과 10-11월에 중점 추진하되, 기상재해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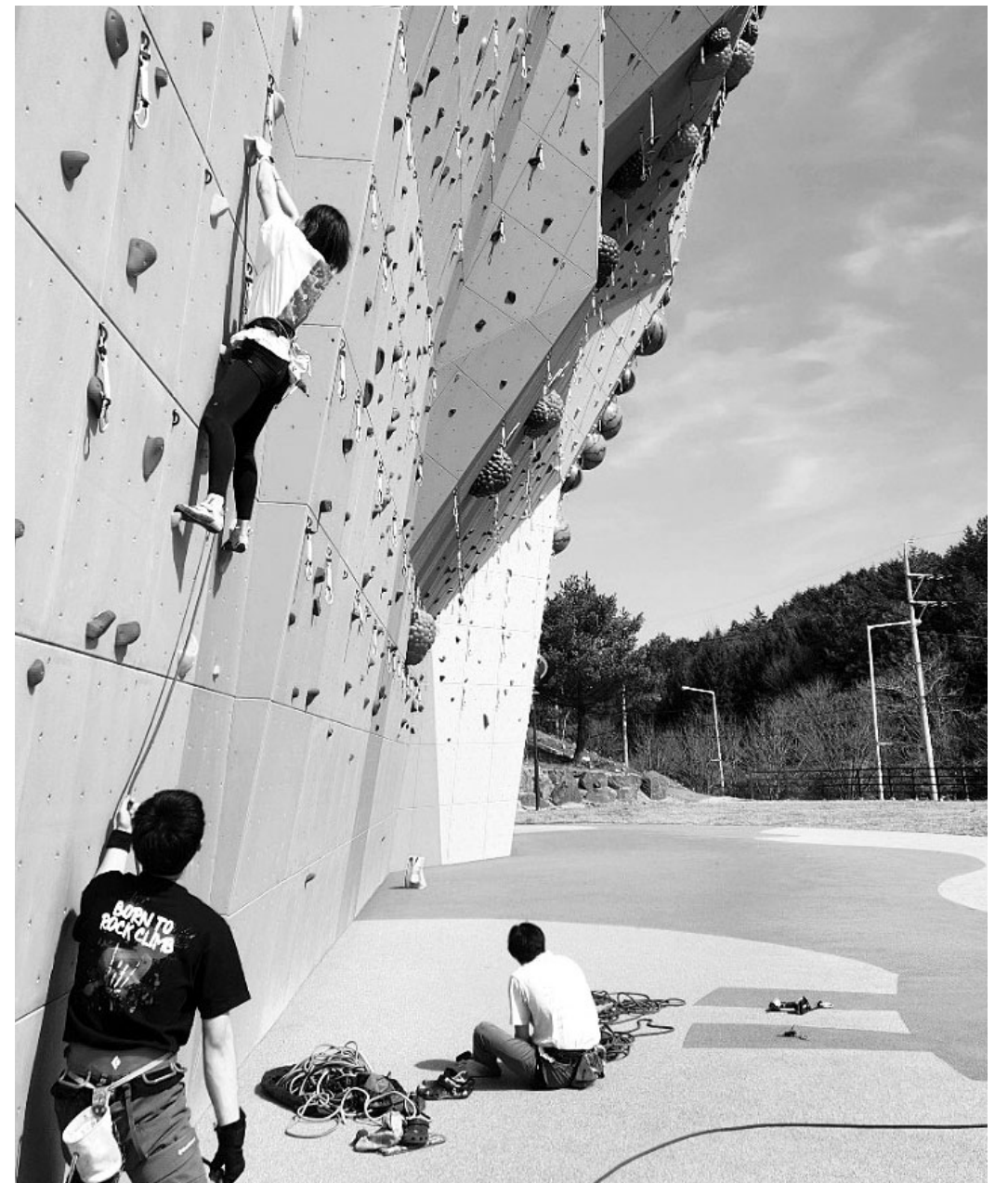
이번 농촌일손돕기에는 정읍시 공무원 등 유관 기관 직원들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농사일을 돕는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23개 읍·면·동에서 총 24개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일손돕기 희망농가를 조사하고 적기·적소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한다.

이 외에도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샘골농협 3개소에서 인력증개센터를 운영해 인력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농촌일손돕기 우선지원 대상자는 독거농가,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농가,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태풍·우박·폭설 등 기상재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받아 희망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며, 농촌봉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고창 인공암벽장 개장...누구나 무료 이용

고창 나들목공원에 인공암벽장을 개장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면적 373.51㎡,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 인공암벽장은 리드벽과 스피드벽 및 실내 인공암벽장, 샤워실 등을 갖췄다.

각 시설에는 추락을 자동 방지하는 시스템과 충격흡수매트가 설치됐다. 안전관리자 2명도 배치됐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인공암벽장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향후 스포츠를 라이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급

19일까지 21억4000만원 투입...농가 경영 안정 기대

남원시가 유류비 상승 등 각종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경유, 휘발유뿐만 아니라 농업용 난방유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 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6589명이 적격 신청자로 확정됨으

로써 2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은 최종 지급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오는 19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지역 농가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으로 면세유 가격안정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정부 양곡창고 재고조사

정읍시가 '2023년 상반기 정부관리 양곡창고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정부양곡이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내 보관창고 89곳과 가공공장 1개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정부관리 양곡창고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재고조사는 양곡 수급 계획 수립, 관리과정의 착오와 부정 유통 등을 사전 예방, 정부양곡의 안전 및 품질관리가 목적이다.

현재 관내 보관창고의 재고량은 3만9846t이다.

조사는 시 관계자와 읍면동 담당자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을 방문해 양곡대장과 실제재고량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